

박도원

변호사시험대비
강의계획서

교수 행정법

중요쟁점정리

- 쟁점별 TRS키워드를 답안지에 현출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강의
- 쟁점의 심화학습을 위해 쟁점별 논리&맥락을 강의
- 판례&사례 자료를 통하여 쟁점추출훈련과 사안포섭훈련에 집중
- 답안지에 써야 할 최소분량의 기준을 제시

일 정

2020. 7. 6(월) ~ 7. 15(수), 총8회, 오전, 월~금 강의
오전 9시 30분 ~ 오후 1시

교 재

- 주교재 : 행정법 실전논점 암기장(저자, 제6판)
- 부교재 : 행정법쟁점답안지(저자, 2020년판, TRS아카데미)(실강 수강생 무료제공)

수 강 특 전

- ▶ TRS 쟁점암기 어플제공
- ▶ [판례&사례] 중요판례 사례자료(제공)

변호사시험 대비

박도원 교수 강의계획서**행정법 중요쟁점정리****강의 특징****첫째, [쟁점별 TRS키워드] 를 답안지에 현출할 수 있도록 훈련합니다.**

방대한 수험분량을 요구하는 변호사시험에서 판례위주의 암기를 통해 어떤 쟁점에도 대응할 수 있는 수험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번 변호사시험 빈출쟁점 정리강의는 “실전논점 암기장(제6판)” 이외에 **변호사시험에 특화된 무기**가 되는 부교재로서 **“행정법 쟁점답안지”**를 활용하여 키워드를 암기하고 문장화시켜 암기부담을 덜어내는 최적의 학습방법론으로 운용될 예정입니다.

주관식 시험에서 쟁점의 키워드는 채점의 기준이 됩니다. 키워드를 현출하지 못한 6줄의 답안지보다 핵심 키워드를 현출한 3줄의 답안지가 더 고득점하는 것이 주관식 시험의 특징입니다. 시간배분과 분량조절을 생각한다면 키워드 위주의 답안지 서술이 필요합니다.

키워드를 하나의 문장으로 연상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둘째, 쟁점의 심화학습을 위해 [쟁점별 논리&맥락] 을 강의합니다.

행정법은 쟁점추출이 어려운 법과목에 속하고, 단순암기로 극복할 수 없는 벽이 존재합니다. 파편화된 단순암기의 벽을 허무는 것이 바로 논리와 맥락입니다. 쟁점의 논리적 연결성과 전체구조속에서의 의미를 이해할 때 비로소 행정법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쟁점의 논리와 맥락을 중심으로 논리와 맥락이 연결되는 답안지를 쓸 수 있도록 훈련하겠습니다.

쟁점의 논리와 맥락은 행정법 답안지의 점수를 결정짓는 핵심요소입니다.

셋째, [판례&사례 자료] 를 통하여 쟁점추출훈련과 사안포섭훈련에 집중하겠습니다.

부교재인 ‘행정법 쟁점답안지’는 주관식 사례풀이를 위한 도구에 불과하지만, 쟁점별 최소분량을 위한 치열한 고민의 산물입니다. 답안지에서 쟁점일반론의 압축서술은 사례풀이의 핵심인 사안포섭능력으로 나머지 답안지 분량을 채울 때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은 사례풀이의 기본인 ‘법률적 분석훈련’과, 주관식 사례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쟁점추출훈련’, 마지막으로 사례풀이의 백미인 ‘사안포섭훈련’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례의 법률적 분석은 수험생의 기본실력을 채점자에게 어필하는 부분이고 쟁점추출은 쟁점누락을 방지하여 합격점수를 이끌어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일반론의 서술보다는 사례풀이의 백미인 사안포섭에서 모든 실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 모든 작업을 짧은 시간내에 완수해야만 행정법 합격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법 실전논점암기장’을 중심으로 학습하되 부교재인 ‘행정법 쟁점답안지’를 활용하여 암기부담을 덜어내고 사안포섭훈련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법 중요쟁점정리

교재특징

‘행정법 쟁점답안지’의 특징을 소개합니다.

첫째, 답안지에 써야 할 최소분량의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주관식 시험은 실전에서 시간배분과 분량조절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논문의 내용을 완벽히 이해했어도 답안지에 몇 줄로 요약하여 쓰지 못한다면 수험에선 무용지물이 됩니다. 이것이 ‘아는 것과 쓰는 것이 다르다’는 수험의 격언이 만들어진 까닭이지요. 쟁점의 최소분량을 암기하고 쟁점의 논리와 맥락을 이해한다면 강약조절에 따라 키워드를 중심으로 더 줄이거나 늘려쓰는 것도 가능해질 겁니다.

‘행정법 쟁점답안지’는 짧은 시간 내에 쟁점의 최소분량을 쓸 수 있도록 돕는 길잡이입니다.

둘째, 쟁점의 논리와 맥락을 QR코드를 통해 영상으로 제공합니다.

쟁점의 논리적 흐름과 연결성은 쟁점의 이해를 심화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요소입니다. 목차가 바뀌는 부분이나 중요쟁점의 경우에 쟁점의 논리와 맥락을 영상촬영하여 쟁점이름 옆에 QR코드로 심어놓았습니다.

‘행정법 쟁점답안지’의 QR코드는 쟁점의 논리와 맥락을 설명하는 유튜브동영상과 연결됩니다.

셋째, 연상학습을 위한 TRS 핵심단어를 선정하였습니다.

쟁점마다 선정된 TRS 핵심단어는 쟁점의 전체 내용을 연상할 수 있는 키워드가 됩니다. 이러한 키워드를 통해 복습시간을 단축하고 누적적 복습이 가능하도록 훈련한다면 시험전 30분 동안 전체 내용을 복습하는 것이 가능해질 겁니다.

‘3단계 연상학습법(TRS 학습법)’은 복습시간의 획기적 단축을 통하여 평소 누적적 복습과 최종적으로 시험 전 전체복습을 목표로 합니다.

넷째, 관련조문과 사안포섭의 예시를 실었습니다.

쟁점과 관련된 조문을 통해 쟁점과 실정법의 연관성을 밝히는 것이 ‘행정법 쟁점답안지’의 특징입니다. 또한 주관식의 핵심인 사안포섭의 예시를 통해 쟁점의 응용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줄임의 미학에서 여백의 창조는 사안포섭능력으로 채워야 할 부분입니다.

행정법 중요쟁점정리

교재특징

‘행정법 쟁점답안지’의 활용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쟁점별 키워드를 답안지에 현출할 수 있도록 훈련합니다.

주관식 시험에서 쟁점의 키워드는 채점의 기준이 됩니다. 키워드를 현출하지 못한 6줄의 답안지보다 핵심 키워드를 현출한 3줄의 답안지가 더 고득점하는 것이 주관식 시험의 특징입니다. 시간배분과 분량조절을 생각한다면 키워드 위주의 답안지 서술이 필요합니다.

키워드를 하나의 문장으로 연상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둘째, 쟁점의 논리와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행정법은 쟁점추출이 어려운 법과목에 속하고, 단순암기로 극복할 수 없는 벽이 존재합니다. 파편화된 단순암기의 벽을 허무는 것이 바로 논리와 맥락입니다. 쟁점의 논리적 연결성과 전체구조속에서의 의미를 이해할 때 비로소 행정법을 정복하게 됩니다.

쟁점의 논리와 맥락은 제목 옆에 QR코드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안포섭훈련에 집중해야 합니다.

‘행정법 쟁점답안지’는 주관식 사례풀이를 위한 도구에 불과하고, 쟁점별 최소분량의 치열한 고민의 산물에 불과합니다. 답안지에서 쟁점일반론의 압축서술은 사례풀이의 핵심인 사안포섭능력으로 나머지 답안지 분량을 채울 때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행정법 쟁점답안지’를 활용하여 암기부담을 덜어내고 사안포섭훈련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이번 변호사시험 빈출쟁점 정리강의는 부교재인 ‘행정법 쟁점답안지’를 활용하여 강의시간에 모든 암기와 복습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강의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논리&맥락과 사례풀이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TRS 연상단어를 통한 강의시간내 복습과 사례풀이의 훈련을 통해 변시 행정법에 대한 완전한 자신감과 필승합격의 가능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시험 대비

박도원 교수 강의계획서**행정법 중요쟁점정리**
**행
정
법
진
도
표**

회 차	일 정	강의 주제
1	7/6(월)	행정소송 일반,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2	7/7(화)	가구제, 본안심리. 판결의 효력(기속력 등), 행정심판
3	7/8(수)	서론(법치행정, 공법관계, 공권), 사인의 공법행위
4	7/9(목)	행정입법, 행정계획, 행정행위 종류(허가.특허.인가등)
5	7/10(금)	부관, 행정행위의 효력(공정력과 선결문제), 행정행위의 하자, 하자승계, 치유·전환, 취소·철회, 기타
6	7/13(월)	단계적 행정결정, 공법상 계약, 사실행위 행정지도, 손해배상, 손실보상
7	7/14(화)	행정조직법, 지방자치법, 공무원법
8	7/15(수)	공물법, 경찰행정법, 기타 각론